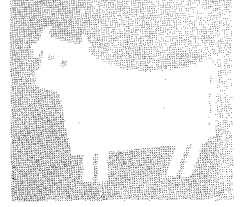


## 축산업계 동향



### 농수산부, 초지법전면개정 · 국회상정키로

#### — 보안림 · 공원지역등제약도 배제 —

정부는 축산진흥 뒷받침을 위해 지금까지 산림법 · 국토이용관리법 · 도시계획법 · 공원법 등 타법으로부터 받았던 많은 제약을 배제,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국유림, 보안림, 사방사업지 및 공원지역 이라도 초지조성 적지로 인정될때는 초지조성지구로 고시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등 현행 초지법을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

농수산부, 경제기획원, 내무부, 산림청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9월정기국회에 제출할 이 초지법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지금까지 산림법, 도시계획법등 관계법으로부터 받던 초지조성 허가절차상의 제약을 배제, 초지법이 타법물에 우선시켜 적지가 있을때는 농수산부와 각시도에 설치되는 초지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거쳐 초지조성지구로 고시할수 있도록 했으며 허가청(시도와 군)은 초지조성 희망자의 신청에 의하여 대상지역에 대한 적지조사를 실시, 초지조성지구로 고시하고 고시된 지구내의 토지소유자는 고시일로부터 1년이내에 개발신청을 하지않고 개발을 하지않을때는 국가가 제3자에게 대리개발을 명할수 있도록 했다.

또 이 법안은 초지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시행자에게 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지원할수 있도록 하고 국공유지에 초지조성허가를 받을자는 국가로부터 5년간 국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으며 임대기간이 끝나면 불하받을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의 토양정밀조사에 따르면 전국토지면적 9백88만1천ha 가운데 산지면적은 67%인 6백59만3천ha이며 이중 초지개발 적지는 98만 8천ha에 이르고 있음에도 현행 초지법이 산림법등 관계법율로부터 많은 제약을 받고있어 지금까지 개발된 초지면적은 4천 2백ha에 불과한 실정인데 정부는 초지법을 전면 개정하는 것과 함께 내년부터 오는 91년까지 산지에 20만4천ha의 초지를 조성하여 젖소와 육우를 대대적으로 입식하여 축산기반을 확대 조성할 계획이다.

### 농협, 단협전무배치 늘려

#### — 80년 1백곳, 82년엔 1천곳 —

농협중앙회는 경영실적이 우수한 단위조합에 전문경영인으로 전무를 배치한다는 계획 아래 올해 처음으로 충북 옥천군 옥천 단위조합등 30개 단협에 전무를 배치했다.

농협은 또 전무배치조합을 80년에 1백개 조합, 81년에 3백개조합, 82년에 1천개조합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농협의 전문경영인 배치는 단협조합장의 경영관계업무를 줄여 대농민 봉사체제를 강화하고 단협의 경영수치개선으로 자립화를 촉진시키며 조합의 자율경영체제를 확립하기

# 축산업계 동향

위한 것이다.

올해안에 전무를 배치할 30개 단협은 다음과 같다.

- △ 경기 : 인천시남인천, 인천시남동, 부평, 시흥군안양, 포천군포천, 양주구리
- △ 강원 : 춘성군춘천, 원성군원주, 명주군강릉
- △ 충북 : 청원군청주, 옥천군옥천
- △ 충남 : 천원군천안, 대덕군동대전
- △ 전북 : 완주군전주, 옥구군군산
- △ 전남 : 광산군남광
- △ 경북 : 달성군동대구, 달성군서구, 월성군경주, 상주군상주
- △ 경남 : 고성군고성, 밀양군밀양
- △ 제주 : 북제주군한림, 남제주군대정
- △ 서울 : 북부, 동부, 남부, 강서, 천호
- △ 부산 : 동래

## 농개공투자 5개사

상반기순이익 20억

— 총매출 3백63억원 —

농어촌개발공사(사장: 진봉현)의 투자회사인 한국냉장, 한국물산, 한국낙농유업, 호남잠사산업, 코텍등 5개사는 지난 상반기중 총매출액 3백63억5천9백만원에 순이익 20억1천3백만원을 기록 경영성과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밝혀졌다.

농어촌개발공사가 분석한 금년도 상반기 투자회사 경영실적에 따르면 한국냉장은 도매시장 운송사업 군납부분사업의 호조로 1백21억5천2백만원의 매출액을 달성, 지난해

동기보다 2백33.8%가 신장됐으며 한국물산도 활갯지렁이·성제등의 수출증대로 36억7천7백만원의 매출액을 기록, 역시 지난해 동기보다 31.9%가 증대했다.

또 한국낙농유업은 유제품 판매활동강화로 1백37억4천1백만원의 매출을 달성, 지난해 동기 대비 79.3%가 호남잠사산업은 25억3백만원의 매출액을 올려 지난해동기보다5.6%가 각각 신장됐다.

그러나 콘텍은 영업초 작황부진에 따라 매출액은 신장되지 않았다.

이같은 투자회사의 경영호전은 농개공 진사장취임이후 투자회사에 대한 경영책임제 채택, 경영쇄신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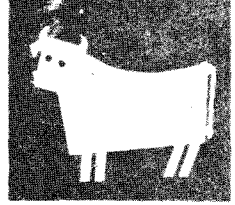
이로써 농개공은 금년말 배당금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신규농수산물 가공업에 대한 재투자재원을 확보할수 있게된다.

## 비육우 출하장려금 인하

— 산지소값 상승따라 3만원으로 —

농수산부는 최근 산지소값이 오름세를 보임에 따라 이제까지 한우가격지지대책의 하나로 비육우 출하농가에 지급해 오던 출하장려금을 대폭인하 하기로했다.

농수산부에 따르면 이같은 조치는 최근 산지 한우값이 4백kg짜리 생체기준으로 69만8천원선을 계속 유지, 정부가 축산농가보호를 위해 보장기로 한 69만원선을 웃돌고있어 비육우 출하장려금을 낮추더라도 생산기반이 유지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이제까지 농협단위조합을 통해 축산물공판장이나 도매시장에 출하된 도살용 한우에 대해 생체기준 4백kg짜리는 5만원, 4백50kg짜리는 7만원씩 지급하던 출하장려금을 9월 3일부터 일률적으로 3만원으로 인하 지급토록 했다.

## 한국야쿠르트 화장품업계 진출

### — 일본야쿠르트와 합작투자로 내년초 본격생산 —

유산균음료 제조업체인 한국야쿠르트유업(대표:윤재병)은 합작선인 일본 야쿠르트와 제휴, 화장품업계에 진출, 내년초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져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야쿠르트는 지난 69년에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일본 야쿠르트와 합작으로 유산균음료를 개발, 국내시장에서 인기를 끌어왔는데 단일품목을 생산해온지 10년만에 화장품업계에 진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야쿠르트는 화장품업계 진출에 앞서 이미 화장품을 생산하고있는 일본 야쿠르트와의 합작계약도 모두 끝낸 것으로 알려졌으며 내년초부터는 본격적인 화장품생산에 들어가게 된다.

## 양돈자금상환 6개월연장

### — 농수산부, 돼지값 계속적인 폭락으로 —

농수산부는 돼지값이 계속 내림세를 보임에 따라 올년말까지 상환토록되어있는 45억

원의 양돈자금상환기간을 6개월 연장시키는 한편 돼지고기의 소매지정가격을 市道知事 재량으로 내릴수 있도록 했다.

농수산부에 따르면 이는 울들어 계속 폭락세를 보이고있는 돼지값을 안정시키기위해 비육돈 주산단지외의 영농자금상환기간 연장과 소매가격인상을 비롯, 소비촉진을 위해 최고기값을 올리는등 다각적인 안정시책에도 불구하고 產地돼지값이 계속 떨어져 방매사태가 계속되고있기 때문에 취해진것이다.

이에따라 농수산부는 현재 서울및 대도시는 한근에 1천원, 기타도시는 9백원으로된 소매지정가격을 市道知事 재량으로 내릴수 있도록 허용, 소비를 촉진시키기로 하는한편 주산단지이외의 양돈농가에서 올년말까지 상환토록된 45억원의 양돈자금 상환기간을 6개월 연장조치했다.

돼지사육마리수는 작년년말의 1백71만6천마리에서 지난6월말에는 3백17만6천마리에서 지난6월말에는 3백17만8천마리로 6개월동안 무려 85%가 늘어났다.

## 한우계류장 개설

### — 도축전 위생적인 건강관리 위해 —

항동부녀회(회장:이세자)는 지난 9월17일 서울시 영등포구 항동 137~1 소재 한양목장에서 한우 계류장 개설식을 가졌다.

지방에서 서울로 반입되는 한우가 도축장에서 처리될때까지 건강을 관리하고 보살피줌으로써 소비자에게 항상 위생적이고 영양가있는 식육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이 계

# 축산업계 동향

류장은 서울시 농협과 개봉단위농업협동조합의 후원을 받아 2백명의 축사에 한우 60두를 수용할 수 있다.

## 도입육우 사육기술강습

### — 축산진흥회, 11월말까지 단지별로 —

축산진흥회는 도입육우입식농가의 사육기술을 향상하고 사육 의욕을 고취,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기위해 9월11일부터 11월30일까지 입식 단지별로 기술강습회를 실시한다.

이번 강습회는 도입육우다두사육지역중, 1개도에서 읍면단위로 2개소씩을 선정, 단지내 입식농가에 대한 강의와 현지 순회지도를 병행하게 된다. 교육내용은 육우의 사양관리, 질병의 예방과치료, 축사시설, 사료작물재배법등이다.

## 세계가금학회 한국지부

### 세미나 성료

### — 최근 문제시 되는 가금질병에

#### 관한 열띤 토론회 —

세계가금학회 한국지부(회장: 오세정)가 주최하는 가금질병세미나가 지난 9월1일 오전 안양소재 가축위생연구소에서 개최되었다.

한국화이자에서 초빙 내한한 미국 조지아 대학교수 Dr. Larry McDaugald의 「양계산업에 있어서 주요질병의 문제점」과 화이자본사 농업개발부 기술담당차장 Dr. Donal. P. Conway의 「가금의 콕시듐병변」에 관해 이영욱 박사(가축위생연구소)의 통역으로 진

행된 이날 강연은 슬라이드를 통한 설명과 함께 최근 문제시 되는 가금질병에 대한 활발한 질의응답이 있었다.

한편 이날 세계가금학회 한국지부 부회장이창연구소장(가축위생연구소)은 세미나가 끝난후 Dr. McDaugald와 Dr. Conway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 '79년도축산진흥대회 취소

### — 각지역별 대회는 소규모로 실시 —

농수산부는 올해 축산진흥대회는 개최하지 않기로했다.

농수산부에 따르면 우량종축을 선발하고 축산인의 사기양양을 위한 축산진흥대회를 당초 10월중순경 개최하기로 했으나 최근 국내 모든 축산업이 불황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어 각지역별대회는 소규모로 서울의 중앙대회는 취소하기로 했다.

## 海港廳, 인천사이로 건설외면

### — 사료용옥수수 하역 보관 차질우려 —

농수산부가 인천항에 동시보관능력 30만톤 규모의 사이로를 건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해운항만청의 인천항개발계획에 묶여 앞으로 이같은 매머드사이로 건설을 못할 경우 우리나라의 사료용 옥수수 도입에 따른 하역 및 보관에 큰 문제를 야기시킬 것으로 보인다.

관계당국에 의하면 농수산부는 81년도에 사료용 옥수수 4백50만톤을 수입하는등 매년 도입량이 크게 늘어날 것에 대비, 하역과



안전보관을 위해 한진에 의뢰, 인천항 한진 부두후방 토지금고 소유의 2만6천평의 대지에 1백80억원을 투입 현 대한사이로보다 2배인 30만t규모의 옥수수 보관창고를 설치토록 하고 해운항만청에 승인요청을 했다.

이에대해 해양청당국은 인천항여건으로 현재 대한사이로(株)의 15만t보관능력으로 연간 2백30만t(1일하역량 6천5백t) 시설과 대한제당(株)에서 같은 규모의 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어 농수산부와 사이로 시설계획은 필요없다고 의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대한사이로는 축산진흥회와 각서를 통해 도입 옥수수 보관에 9만t의 시설을 사용키로 하고 있으나 당초 회사설립목적에 제분협회측이 주도가 되어있어 실질적으로 9만t의 시설을 사용치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 건설될 대한제당의 사이로도 공업용 곡물을 위주로 하여 보관할 것으로 알려져 계속 늘어나는 사료용 옥수수 하역처리및 보관에 큰문제를 안고있는 실정이다.

## 농촌저축여력 위축

### — 하곡자금 방출불구 지출늘어 —

농촌의 저축여력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농수산부에서 조사집계한 「농어촌저축실적」에 의하면 지난 7월말 현재 농협의 저축실적은 작년 동기에 비해 33.9%증가한 1천8백61억원으로 올해 목표 2천5백30억원에 비해 73.5%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금년산 하곡수매자금으로 1천4백60억원

이 풀려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농촌예금이 이처럼 저조한것은 농촌 구입물가가 급등, 교역조건이 악화되고, 농기계, 농약등 영농자재비 인상으로 영농비가중, 전체물가 상승에 따른 생계압박 등으로 자금여력이 위축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 환지지정 하한 3백평으로 조정

### — 개정법률안 의결 —

지난 9월10일 열린 경제장관회의는 농촌근대화촉진법중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법률안은 경지정리공사 완료후 시행하는 환지 지정업무에 있어 구역내 3백평 이하의 적은 필지에 대한 환지를 지정할 경우 농업의 영세성이 심화될 뿐 아니라 농업기계화촉진에도 장애가 될 요인이 되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한 것인데 현행법에는 경지정리 구역내 개인별 소유토지에 대한 환지지정 하한면적이 1백평으로 되어 있는것을 3백평으로 조정한 것이다.

## 농협, 공제순회진료 실시

농협중앙회는 지난 8월중 전국18개군 1백2개면에서 공제순회진료활동을 벌인데 이어, 9월중에도 경남·전남지방의 수해지역을 포함해 전국의 15개군 76개읍면에서 공제순회진료활동을 전개하였다.

# 축산업계 동향

## KIST, 닭고기 가공제품개발에 대한 세미나 및 전시회 개최예정

### — 닭고기 소비증대 중요한 계기될듯 —

약10개월 동안 닭고기를 이용한 육제품 개발에 주력해온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축산가공연구실 (실장:이유방 박사)에서는 오는 11월중에 식품계의 기술진 및 경영진을 육가공업계, 초빙하여 닭고기 가공제품의 이용에 대한 세미나 및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닭고기를 이용한 다양한 육제품 개발의 가능성을 제시하게 될 동세미나는 식품업계의 많은 관심을 집중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닭고기 소비증대에 중요한 계기가 될것이다.

## 칠면조 사양기술 세미나 개최

### — 국내처음으로 남창부화장주관 —

남창부화장에서 주최하는 칠면조 사양기술 세미나가 지난 9월 8일 오후 국립여성복지



원에서 개최되었다.

100여명이 참관 성황리에 개최된 이날 세미나에는 캐나다 Hibrid농장의 J. Dunrope씨가 강사로 초빙되고 통역은 중앙약품 원송대 상무가 수고하였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칠면조 각품종의 소개와 전반적인 사양관리 특성에 관해 토의가 있었다.

## 전국 농업기술자 대회 개최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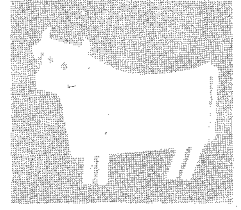
### — 12월 4일부터, 농산물품평회도 함께 —

농업기술자협회(회장:류달영)에서는 제20회 전국 농업기술자대회를 오는 12월 4일과 5일 세종 문화회관 별관과 전국대학교에서 개최한다.

농민의 정신혁명, 농업의 기술혁명, 농촌의 생활혁명을 완수하여 새마을운동에 앞장선 전국농민들의 총화단결과 생산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열리는 본회의는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품질향상 및 증산에 이바지하고 도시 소비자들을 올바르게 계도하고자 농산물 품평회도 실시한다.

품평대상 농산물은 채소·과수·유기농산물에 국한시킨 이번 품평회 출품신청접수는 11월 20일(화)까지 출품은 11월 29일이며, 입상 농산물은 12월 5일부터 10일간 시내 유명백화점에서 전시회를 갖는다.

동대회에서는 입상농산물전시회와 아울러 우수농업자재 전시회도 함께 갖을 예정이다.



## 방묘종의 초식가축

### 배설물분석으로 보충사료결정

#### — 미국 Texas A&M대학 연구팀 밝혀 —

미국 Texas A & M대학의 Larry White 박사를 중심으로 한 연구진은 방묘종의 소, 양, 염소 및 사슴의 배설물을 정성 및 정량 분석하여 이들이 섭취한 목초(사료)의 종류와량을 밝혀 낼 수 있으며 이를 기초로 어떤 종류의 보충사료를 얼마나 급여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서 White박사는 사료의 분석과 가축의 배설물 분석을 병행하면 보충사료의 질과 양을 정확하게 정할 수 있어 가축의 경제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게 하므로서 합리적인 목장경영을 꾀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추백리 검색요원 기술훈련

#### — 전국 150여명 공, 개업수의사

#### 대상으로 실시 —

닭질병중 난계대전염병으로 야외에서 계속 발생, 큰 피해를 주고있는 추백리의 검색요원을 훈련시키기 위한 수의사들의 기술훈련이 9월 12일에서 16일까지 지역별로 실시되었다.

농수산부와 대한수의사회가 주관하고 가축위생연구소의 기술협찬으로 이루어진 이번 기술훈련은 1차는 9월 11일과 12일 가축위생연구소에서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지역

2차는 9월 13일과 14일 가축위생연구소에서 충남, 전북, 전남지역, 3차는 대구소재 경북도가축보건소에서 경북, 경남, 제주, 부산시의 공개업수의사중 선발된 수의사 15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훈련내용은 박근식(가축위생연구소 계역과) 과장을 비롯한 계역연구 담당관들을 강사로 하여 양계산업의 특성과 전망, 개란성전염병의 특성과 예방대책, 추백리의 발생과 진단요령, 닭의 살모넬라병해설, 추백리의 혈청학적진단에 있어서의 비특이반응과 대책, 선진국의 가금질병예방과 위생대책현황, 살모넬라와 추백리에 대한 슬라이드 강연외에 추백리의 혈청반응, 추백리세균의 분리, 배양, 생물학적 상장조사 등을 실습한 뒤 소양시험과 평가를 가졌다. 이 외에도 이창구(가축위생연구소)소장과 이창림(농수산부 가축위생과)과장의 특강이 있었으며 훈련기간동안 윤쾌병(대한수의사회)회장이 계속 참석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번 훈련은 앞으로 각종계장에 있는 종계에 대한 추백리 검색을 원하는 시기에 즉시 실시하여 일반 실용계의 추백리 감염을 방지하고 나아가서는 소비자에게 위생적인 닭고기와 계란을 보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하겠다.

## 서울사료 창립10주년 기념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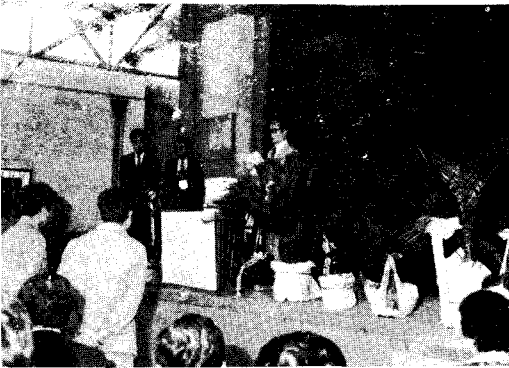
#### — 정대헌전무외 10명 표창도 —

서울사료(주)(대표:김길원)는 지난 9월 22일 회사창립 10주년 기념행사를 업계인사 50

# 축산업계 동향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부천시 내동 서울사로 본사에서 성대히 베풀어졌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정대헌전무이사에 대한 공로패수여와 이계조(천호부회장 대표), 김현식, 공원식씨에 대한 감사패 전달과 정용인(경리부)씨를 포함 7명의 직원에 대한 표창장을 수여하였으며 이어서 간단한 다과회를 열어 자축했다.



## 육류 냉동창고 완공

- 10월중 서울·부산에 2천 8백평 -

축산진흥회는 오는 10월중 2천 8백평의 육류보관 냉동창고를 완공, 원활한 육류수급을 도모하기로 했다.

축산진흥회에 따르면 정부양곡창고이던 서울 휘경동소재 2천평과 부산사상소재 8백평의 창고를 인수, 냉동창고로 개축중인데 현재 공정이 90%에 달해 늦어도 10월말부터는 육류보관창고로 활용할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축진의 냉동창고는 인천사업소의 6백평과 함께 모두 3천 4백평으로 늘어나는데 총 1만 2백여t의 육류저장능력을 갖게 된다.

한편 축진은 자체 보관창고가 확보됨으로써 축산물가격변동에 대처한 비축과 방출을 원활하게 할수 있게 되었는데 우선 1차적으로 최근 돼지가격폭락에 따라 실시중인 돼지수매 비축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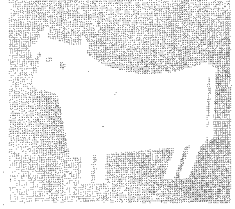
## 美國, 돼지값30% 하락

- 생산자단체 10억들여 소비촉진 -

금년 美國의 肉豚 도살수는 8,700만두로 예상되어 작년보다 20% 많은 돼지고기가 생산 될것으로 보인다. 이는 史上 두번째의 기록적 過剩生産이며 그동안 輸出도 부진하여 생돈가격은 지난 6개월 사이에 30%가 떨어져서 현재 kg당 380원이다.

이와같은 養豚불황을 겪고있는 미국은 생산자단체가 앞장서서 불황타개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두드러진것은 돼지고기 소비촉진활동이다. 미국양돈협회가 육축 식육보오드와 도축업계의 협조하에 200만불(약10억원)의 예산을 토대로 하여 전국적 소비확대홍보에 진력하고 있다. 이미 자돈생산을 조절하고 있는 이 생산자단체는 당면한 단기적 과잉생산물의 소비촉진추진과 동시에 장기적 수요증가책으로 햄버거를 대체할 수 있는 포크버거(Pork burger), 포크샌드위치(Pork sandwich) 쏘시지 샌드위치의 개발에도 착수했다.





## 농수산부, 축산물 수급동향관측 사업추진을 위한 협의회 개최,

농수산부는 양축농가의 가축사육추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축산물 수급조절을 통한 가격안정 시책을 펴기위한 축산물 수급동향 관측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9월18일 협의회를 개최했다.

동사업은 가축사육동향조사, 사료생산 동향조사 산지가격, 소비자가격조사등을 실시하여 사전에 경기를 예측, 이에 대비하는 생산조절조치, 매스컴을 통한 홍보활동등을 전개하는 것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 비축·수매사업 대폭축소

### - 농수산부, 출하조정사업은 강화 -

농수산부는 내년도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규모를 금년도 9백88억7천7백만원보다 1백13억2천7백만원이나 줄여든 8백75억5천만원으로 책정, 농산물의 출하조정사업을 확대하되 정부비축 및 일반수매물량은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농수산부에 따르면 내년도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응용규모를 이같이 줄일것은 쇠고기·돼지고기등 수입물량을 대폭 감축함으로써 판매수익금이 작년보다 줄어드는데다 고추·마늘등 농산물 수입역제로 비축사업을 전체적으로 축소조정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도 기금운영계획을 보면 비축사업은 79년도 6백7억2천만원에서 4백50억원으

로 줄어들었고 일반수매도 2백3억2천4백만원에서 1백50억원으로 줄었으며 출하조정 부문에서도 79년도 1백12억6천8억원보다 37억여원이 많은 1백50억원으로 증액했다.

## EC, 79곡물생산

### 작년보다 6%감소할듯

#### - 미 농무성 작황 보고서에서 밝혀 -

미농무성의 세계작황보고서(79. 8. 15일현재)에 의하면 EC의 금년도 곡물생산량은 지난해의 1억1,600만톤보다 6%정도 감소한 1억800만톤에서 1억1,000만톤 내외가 될것이라 한다. 이렇게 곡물생산량이 감소하게 된 것은 파종기의 기후부조로 지배면적이 줄어들었을 뿐만아니라 건조한 기후가 계속되어 단수마저 작년보다 낮아질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한다.

이러한 현상은 회원국별로 보면 프랑스는 옥수수생산에 있어서는 사상최대의 생산고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나 전체곡물생산량은 지난해의 4,560만 톤보다 15%가 감소할 것이라 하며 영국, 독일, 이태리 등은 작년과 거의 같은 1,700만톤, 2,400만톤, 1,670만톤의 곡물을 각각 생산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 캐나다, '79곡물홍작

### - 작년의 79%정도 생산될듯 -

캐나다 곡물생산자협회의 추정(79. 8. 9일

# 축산업계 동향

현재)에 의하여 밀, 귀리, 보리, 호밀, 채종실 및 아미인을 포함한 금년도 캐나다의 곡물 생산량은 지난해의 3,790만톤 보다 21%나 적은 3,000만톤 내외가 될 것이라 한다.

그런데 이 예측에는 지난 8월 12~14일 사이에 있었던 서리피해가 고려되지 않다고 한다. 이 기간동안 기온이 예년보다 3~5℃ 나 내려가 심한 서리가 내린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채종실의 주산지에 서리피해가 심하여 금년도 채종실 생산량은 년초에 예측한 181만톤보다 13%나 감소한 158만톤이 될것이라 한다.

그리고 금년도 밀생산량은 작년도의 2,060만톤 보다 27%나 감소한 1,510만톤의 될것이며 보리는 19%감소한 800만톤 그리고 귀리는 21%감소한 210만톤이 생산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 번식돈 감축지시

### - 경상남도, 가격안정 위해 -

경상남도는 농가에서 번식돈을 과다하게 보유, 생산을 지속하고있어 돼지값 하락이 장기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 과잉번식돈을 감축시켜 정상적인 생산 및 수급조절로 가격안정을 기하도록 하라고 전 시·군에 지시했다.

경상남도축정당국은 각시군별로 번식돈 5두 이상을 보유하고있는 농가를 조사 농가당 총사육두수에 대한 번식돈의 비율이 15%를

넘을때는 적정수준으로 감축조정하여 양돈농가를 보호하고 돼지가격을 안정시키도록 했다.

과잉번식돈의 감축은 노폐돈, 불량번식돈, 번식후보돈중 불량돈을 우선 출하토록하고 농협 계통출하시는 비육돈 5~10두에 반드시 번식돈 1두를 포함시켜 출하토록 했다.

## 미국, 사료·소맥수출

### 최고기록될듯

#### - 소련의 수입량증가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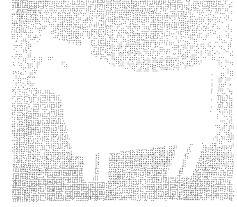
미국의 79~80년도 곡물판매의 사료용 곡물수출량은 소련의 수요증가 때문에 최고기록을 수립 할 것이라고 미농무성이 예측했다.

농무성당국자의 예측에 따르면, 미국의 사료용 곡물수출은 15~20%증가되 신기록을 수립할 것이며, 소맥수출도 기록적인 13억t 이 될것이다.

최근발표된 농업수급보고서는 또한 미국내의 사료사용량은 작년과 거의 동일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곡물가격상승으로 미국내 가축생산량이 완만하게 증가될 것이기 때문이다.

옥수수, 수수, 대맥, 귀리(oats)등 사료용 곡물의 생산이 8%감소된 2억t이 될것이고, 수요는 증가될 것이기 때문에, 년말재고는 4년말 최근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다.

소련의 강우량부족으로 인한 곡물감산이 미국의 사료 및 소맥의 수출이 증가될 주요인이다.



소맥의 경우에는 미국의 주요수출경쟁국인 캐나다와 호주가 수송 및 해운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수출이 득을 보게 될것이다.

소련은 최근 옥수수 55만t과 소맥 22만 5천t을 미국에서 수입함으로써, 9월말에 끝나는 미·소곡물협정 제3차년도중 매매가능한도인 천5백만t에 거의 가까운량을 소련이 수입했다.

미국의 대두 및 기타농산품의 수출은 세계시장의 경쟁격화에 대면 할 것이며 특히 일기호조로 남미의 대두가 대폭 증산되고, 미국내 해바라기씨 수확이 크게 증가되며 캐나다의 채종씨가 대량 증수되면 더욱 심화될것이라고 농무성보고서는 전망했다.

## 동물약품협회 체육대회 성료

- 15개회원사 600여명 참석,  
우승에 한두교역 -

한국동물협회(회장:최죽송)가 주최하는 제2회 회장기쟁탈 회원친선체육대회가 지난 9월22일(토) 경기도 양주군 내곡리 밤섬유원지에서 성대히 베풀어졌다.

15개회원사 600여명이 참석하여 A·B 조로 나누어 배구·탁구·계주를 겨룬 이달 체육대회에서 종합우승은 한두교역이 차지했으며 대성미생물의 이육교선수가 최우수선수로 뽑혔다.

특히 현대관과 고전이 적절히 가미된 응원대결에서 응원상은 녹십자수의약품(주)가,인

기상은 한두교역 농약대가 각각차지했다.

이날 성적은 아래와 같다.

종합우승: 한 두 교 역

준우승: 한국동물약품(주)

3 위: 중앙약품공업사

배구 우 승: 대성미생물(주)

준우승: 한국동물약품(주)

3 위: 한두교역, 과학축산

탁구 우 승: 중앙약품

준우승: 한두교역

3 위: 이글케미칼, 제일약품공업사

계주 우 승: 이글케미칼

준우승: 녹십자수의약품(주)

3 위: 한두교역

최우수선수상: 이육교(대성미생물)

인 기 상: 한두교역농약대

응 원 상: 녹십자수의약품(주)

감 투 상: 농수산부 가축위생과

## 미국농업무역관(ATO) 신설

- 초대 관장에 Evans Browne임명 -

미농무성은 미국농산물의 대한교역량의 증가에 따라 농업무역법(1978)에 의거 서울에 농업무역관(Agricultural Trade Office)을 설치하기로 하고 지난 9월19일 초대 관장에 캐나다 부농무관 Evans Browne씨를 임명하였다.

전 주한미대사관 건물(호텔롯데 건너편)내에 신설되는 무역관을 미국농산물 교역과 관련된 제반 수출진흥업무를 전담하며, 미사

# 축산업계 동향

료곡물협회를 비롯한 품목별 전문기구의 시장개발활동도 협조한다.

## 배합사료공장 시설근대화사업 용자요령발표.

### — 축산진흥기금에서 18개업체 37억 5천만원 용자 —

한국사료협회(회장: 정태원)는 배합사료공장 시설근대화사업 용자 지원요령을 발표했다.

축산진흥기금에서 18개업체 37억 5천만원이 용자되는 이번 용자지원계획은 배합사료공장의 시설근대화 및 규모확대와 성력양산체제로 양질의 배합사료 생산과 적정가격의 배합사료 판매로 양축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건물·싸이로 및 기계시설자금에 한하여 50%이내(용자금 한도액: 공장별 2억원)에서 용자될 예정이다.

자세한 세부지침은 다음과 같다.

### 세부지침

#### (1)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① 도시계획 및 이에 준하는 지역개발계획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사급히 이전해야할 기존사료공장

② 기존영세공장으로서 합병하는 사료공장

③ 시설근대화지침에 의하여 증설 또는 이전할 기존 사료공장(상기 (1)항의 대상자. 선정시는 1978. 1. 1 이후 농수산부 장관의 배합사료 제조시설 변경승인을 얻은 자로서

1978년도 이후 사료공장 시설근대화 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이어야 함).

④ 농협직영 사료공장은 신규공장에 한하여 지원(농협 시장점유율 제고)

#### (2) 대상자 선정

① 1979. 2. 1부터 기존 일반 사료공장은 한국사료협회장에게 농협직영 및 축협공장은 농협중앙회장에게 배합사료공장시설근대화사업용자지원 신청서 2부를 제출(별첨서식)

② 농협중앙회장과 한국사료협회장은 기히 지시된 시설근대화지침에 합당한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시설변경승인(가허가)을 얻은 사료공장에 대하여 대상자 선정기준의 우선 순위와 시설변경 승인일자 등을 감안, 대상자를 선정하여 농협 중앙회장에게 용자 추천한 후 농수산부장관에게 보고(시설자금은 회사단위로 1개공장만 지원한다)

#### (3) 용자기관: 농협

#### (4) 용자조건

연리 12.5%,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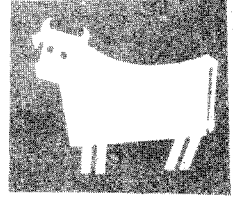
#### (5) 용자비율

건물싸이로 및 기계설비 소요자금의 50% 이내

#### (6) 기 타

① 용자금의 대출은 농협용자 규정에 의함.

② 용자금은 건물, 싸이로 및 기계설비 등 시설자금에 의하여 사용하고 부지 및 운영자금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각종 증빙서류의



철저한 확인은 물론 필요시 현장 확인결과에 의거 공장실적 진도에 따라 융자지원 하여야 함.

③ 농협은 공장개소당 지원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잔금액 발생시 추가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융자지원할 수 있음.

## 대두수입관세 면제 요청

### — 대두박값 20~25% 인상도 주장 —

농수산부는 현행 10%로 되어있는 대두수입관세를 면제해 줄 것을 재무부에 요청했다.

농수산부당국에 따르면 대두 국제시세가 크게 올라 현행 대두박 및 콩기름 판매 가격을 기준한 톤당 C & F 3백9달러 50센트를 훨씬 상회 3백30달러선에 달해 콩을 원료로 한 제품(대두박·콩기름) 가격인상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수입관세를 면제해 줌으로써 생산코스트를 낮춰야 하기 때문에 관세 10% 면제를 요청했다는 것이다.

농수산부당국자는 대두가 생필품 특별관리 대상에 해당하는 품목이기 때문에 수입관세를 면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며 특히 관련 제품인 대두박은 배합사료의 필수 원료이기 때문에 양축농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생산원가절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다.

한편 관련업체는 현재 사료로 사용하고 있는 대두의 수입가격이 톤당 C & F 3백20~

3백30달러이기 때문에 관세를 면제해 준다하더라도 10~15%의 제품가격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올해 사료원료로 필요한 대두 수입 물량은 36만톤으로 이 가운데 동방 유량 이 27만톤을 차지하고 있다.

## 성수기 돼지고기소비 늘어

### — 쇠고기값 인상과 군납영향 —

가을철에 접어들면서 돼지고기 소비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산지의 돼지값도 오름세를 나타냈다.

그동안 돼지고기생산으로 체화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9월 1일부터 쇠고기값을 올리자 돼지고기 소비가 늘어나기 시작했으며 계절적으로 성수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최근 서울시내 도축장의 도축두수는 8월의 하루 평균 1천7백두 수준에서 2천7백두로 늘어났는데 산지 돼지값이 마리당(90kg기준) 5만원 선에서 5천4백원으로 올랐으며 경락가격은 kg당 8백원선에서 9백원선까지 넘어 서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특히 돼지고기 군납을 늘려 지난 10월부터 연말까지 하루에 3백25두분을 납품하게 됨으로써 앞으로 생돈의 적정두수 유지가 이루어 질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 축산업계 동향

## 내년에는 초지 8천ha 조성

### — 일반 2천ha에 국고보조, 기업목장엔 용자 —

농수산부는 내년에 8천ha의 초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농수산부는 가축증식기반 확충을 위해 야산개발사업을 확대 추진키로 하고 내년에 초지 8천ha(올해 5천ha계획)을 조성하기로 했으며, 이중 2천ha는 호당 10ha 미만의 일반양축농가를 대상으로 초지조성비의 54%를 국고에서 보조하고 10ha 이상의 기업목장에 조성할 6천ha에 대해서는 조성비를 저리로 용자해 줄 방침이다.

## 석유의존도 91년까지 51%로

### — 대체에너지 최대활용 대책마련 —

정부는 석유부족시대에 적응하기위한 장기에너지수급대책을 마련, 제5차5개년개발계획수립과정에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을 반영키로 했다.

경제기획원이 마련한 장기에너지수급대책추진계획에 따르면 현재 61%에 이르고 있는 석유의존도를 오는 91년까지 51%선에서 줄인다는 계획아래 무연탄생산확대, 조력및 수력자원개발, 태양열주택공급 등 대체에너지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산업정책을 에너지절약형으로 재정립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관계부처별로 내년 6월까지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게 될 주요시책 사항을 보면, 산산

유국과 경제협력강화 △석유도입선의 다변화 추진 △합작정유공장건설 △에너지절약형 산업육성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정 △대체에너지 수송지원 시설 등이 포함되어있다.

## 농협 배합사료공장 4곳신설계획

### — 년 140만톤 공급, 1백 69억원 투입 82년 까지 —

농협중앙회는 사료수요의 급격한 증가추세에 대비, 공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82년까지 총 1백 69억 7천 4백 만원을 들여 대단위 배합사료공장 4개소를 새로 건설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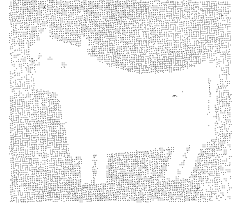
ADB차관자금 63억 5백만원(1천 3백만달러)과 내자 1백 6억 7천 2백만원을 각각 투입하여 짓게 될 신규 배합사료공장은 대지 1만평, 건평 3천평규모에 일산 3백톤, 년산 9만톤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로서 81년 6월까지 금천과 조치원에 82년 6월까지 나주와 북평에 각각 건립하게 된다.

이로써 농협이 직영하는 배합사료 생산능력은 현재 3개공장의 50만톤에서 82년에는 1백 40만톤 규모로 늘어나게 돼 전체 수요의 30%를 공급, 사료수급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1대잡종우 확대분양

### — 농진청, 인공수정으로 600두생산 —

농촌진흥청은 최고기 단위생산제고를 위해



외국의 육용우 샤로레와 한우를 교잡한 1대 잡종우를 농가에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농진청 산하 축산시험장에서 지난 70년 미국과 프랑스로부터 샤로레종 정액을 도입하여 한우암소에 인공수정을 시킨 후 여기서 생산된 1대잡종 수소의 육성비육 시험을 실시한 결과 샤로레 1대잡종의 18개월령 체중이 636.4kg으로 한우순종 수소 체중 4백20kg보다 52%가 더 자라왔으며 지육율이 62.6%로 우육생산량이 398.4kg으로서 55%서 우육을 증산할 수 있게 돼 1대잡종우 생산을 위한 시험연구결과에 따라 이를 농가에 확대보급키로 했다.

이와함께 한우와 샤로레의 잡종 개량을 위해 지난 78년부터 강화도에 사육되고 있는 3천여마리의 농가소를 대상으로 집단개량단지를 만들어 대형육우인 샤로레정액을 한우 암소에 인공수정시켜 8월말 현재 3백 14마리의 송아지를 생산했으며 년말까지는 6백 마리를 생산할 계획이다.

## 업계 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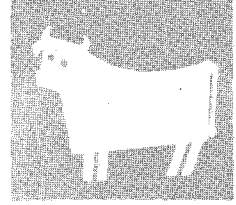
- 부국사료(주) (대표: 한호섭) : 영업부에 김일수(전대 축산과졸)씨를 특채
- 서해농산(대표: 김동훈) : 서울사무소장에 김순명 상무이사를, 구매부장에 황보건(전 서울사무소장)씨를 기용,

- 대성미생물(주) (대표: 조성용) : 기획부차장 김재현(전영업부차장), 기획부학술담당 정태봉, 영업부 중대동물담당에 황성연씨를 전보발령하고 이승준(서울대 수의대졸)씨를 영업부에 김신규(진주농전 축산과졸)씨를 경남지역 주재원으로 신규채용.
- 축산진흥회 (회장: 함만준) : 방병한씨가 이사로 취임하고, 총무부장에 박효작(전 감사실장)씨 감사실장에 김상근(전 총무부장)씨가 각각 수평이동
- 중앙약품공업사(대표: 김무진) : 영업부에 임기성(전 협동축산), 김광식(전 삼광수의약품)씨를 특채
- 화성사료(주) (대표: 김봉욱) : 공장장에 정석희(전 미원사료)씨를 영업과장에 서영채씨를 생산과장에 이종구(전 부민사료)씨를 기용하고 영업부에 김봉주(전대 축대졸)씨를 특채.

## 업계 단신

- 한국영양학회 (회장: 한인규) : 11월 10일(토) 수원에서 일본 도꾸시마대학 영양학과 구로이노우에교수를 초빙 “제란단백질의 영양가를 위주로 한 단백질식품의 평가”에 대해 강연.
- 사단법인 대한양돈협회 : 제 3대 회장에 현직 국회의원 김재식씨가 피선, 부회장에는 박민철(코리아·환대표)씨와 허창식(재영농장대표)씨가 선임.

# 축산업계 동향



- **대한수의학회(회장: 정창국)** : 1979년 도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회를 10월14일(일) 오전 9시부터 수원소재 서울대학교 수의과 대학에서 개최예정.
- **화성산업(주)(대표: 김봉욱)** : 사세확장에 따라 이리공단에 일산 300톤 규모의 자동시스템의 사료공장을 신축하고 11월 중 준공 시험생산예정.
- **세계가금학회 한국지부(회장: 오세정)** : 「뉴캐슬병 바이러스 연구사」(박근식) 외 4편의 논문이 수록된 가금학회보 제6권 2호 발간
- **미국대두협회** : 대두의 교역, 가공, 소비와 관련된 기술지원, 시찰단파견, 각종자료발간 배포업무를 담당할 한국지부 9년내 설치계획 지부장에 이경원박사, 연락처는 미국대사관 702호실 ☎ 72~2601
- **대성미생물(주)(대표: 조성용)** : 일본 백신메이커 日生研과 제휴 AR(돼지의 전염성위축성 비염)백신과 IBR백신(소의 전염성 기관지염)을 수입시판하며 가축위생연구소의 기술지도로 뉴캐슬사독백신을 약독주(B, 주)로 생산출하
- **한국성형제지(대표: 이종선)** : 지난 4월 착공한 건조실 증축 완공과 새로운 초지기 제작에 성공(시간당 4800매 생산)으로 월간 난좌 100만장 생산으로 10월부터 대량생산체제 확립.
- **동남축산센터(대표: 윤용구)** : 계분제거기 의장특허 27497호(79. 8. 31 일

자)를 획득하는 한편, 수동식에서 0.5HP 동력 모터 장치로 전동화.

- **제일사료(주)** : 전남 광주시 서구 누문동 216번지 제일빌딩 2층(거북 당구장 옆)에 광주직매소 개설 광주에 사료공장을 세운다는 마음자세로 현지에서 공장도 가격으로 판매예정, 직매소장: 김종남 ☎ (광주) 3-7847

## 이 전

- **대한신약(주)(대표: 김홍기)** : 10월 1일(월)부로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377-1로 사무실이전 ☎ (32) 2585, 7454

## 전화번호 변경

- **부산가축약품상사(대표: 방수근)** : (부산) 52-1504로 전화번호 변경
- **중앙가축전염병연구소(대표: 윤지병)** : (대전) 5-2991~4로 전화번호 변경
- **대한제당인천공장** : (인천) 72-8031 ~ 8040으로 전화번호 변경